

유희산업시설 재생을 통한 상하이 창의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표현 특성**

Characteristics of Design Expression Reflected in Creative Space in Shanghai through Regeneration of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Author 박미라 Park, Mi-Ra / 정희원,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석사과정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Regeneration of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can heighten the availability through potential values that cannot be found in newly-built buildings and through the sense of overscale space. Furthermore, backward regions can be activated by assigning their identity and establishing social-cultural infrastructure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and integrate of characteristics of design expression based on a case of creative space in Shanghai. A research on the creative space in Shanghai designedly proceeded according to government's extensive administrative support and policy. We keep appearances of industrial buildings as close as possible to their original condition, thereby revealing symbolism and forming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m from those of other areas. While keeping the shape characteristics of the bridge8, M50, Red Town, 2577 Greative Garden and 1933 Shanghai, we designed spaces in terms of spacial variability, oneness, accessibility and continuity and activated areas by induc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ostering art and cultural oriented facilities. These characteristics of design expression ar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regenerating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ly and hopefully they are used as a reference of design plan.

Keywords 창의공간, 재생, 상하이, 유희산업시설
Creative space, Regeneration, Shanghai,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탈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산업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후화되었다. 노후화된 산업시설은 도시 내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유희산업시설은 신축건물에서 볼 수 없는 오래된 것에서 오는 잠재적 가치와 일반적이지 않은 오버스케일의 공간감을 통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축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와 함께 역사적, 상징적, 문화적 의미가 잠재되어 있는 곳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탈산업화를 먼저 경험하면서 1970년대부터 유희산업시설을 문화나 상업시설 등으로 재생,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시 창작 공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¹⁾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을 확충하여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2014년 8월부터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을 추진하는 등 유희산업시설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여 인접국 중 중국의 상하이에서는 창의공간이란 명칭으로 유희산업시설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에 주목 하였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지역을 당대 예술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적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oonduck.kim@kku.ac.kr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조연주, 신경주, 유희산업시설의 컨버전 사례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3호, 2011.6, pp.59-60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버려졌던 유희산업시설은 수많은 관광객이 운집하는 새로운 창의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상하이에서는 버려진 공장, 창고 등을 재생한 홍방(紅坊), M50(莫干山M50), 1933노장방(1933老場坊)은 주민,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희산업시설의 활용성에 대한 가치와 특성 도출하고, 상하이 창의공간의 사례를 대상으로 디자인 표현 특성을 분석, 종합하여 향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희산업시설을 재생할 때 고려되어야 할 디자인 방안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상하이에서 유희산업시설을 재생하여 창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 중 공간 활용도가 높은 8호교, 모간산루M50, 홍방, 2577 창의대원, 1933노장방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함께 상하이 현지답사를 통해 진행한다. 2장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가치와 특성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창의공간에 대한 개념과 디자인 표현 특성을 통하여 분석틀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3장의 특성 분석틀로 사례 분석하여 상하이 창의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표현특성에 대해 분석, 종합한다. 5장에서는 종합한 분석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다.

1.3. 선행연구의 고찰

상하이는 동아시아 최대 개방지로 여러 무역항구와 공업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의 영향이 중국적 성향과 결합되어 상하이만의 건축적 독창성이 형성되었다. 상하이는 급격한 도시발전에도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잘 보존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건축자원을 창의적 산업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상하이 관련 선행연구는 장유경, 유재우(2011)의 중국 상하이 쇠퇴산업단지의 문화주도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한지은(2012)의 창조도시의 중국적 맥락, 주령(2012)의 중국 문화창의산업 현황에 대한 고찰과 김도연(2013)의 상하이 창의재생단지의 내러티브적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기효선(2014)의 상하이 근대공업건축의 재생에서 나타나는 공업건축의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도시재생, 창의도시, 창의산업과 함께 공업건축의 재생까지 논의되어 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이 창의공간에 나타나는 디자인 표현 특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가치 및 특성

2.1. 유희산업시설의 개념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질문명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던 산업시설이 늘어났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던 공장과 설비 위주의 산업 시설물들은 기능을 상실하여 활용도가 없어지고, 도시 내에 방치되어 주변 지역의 이미지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게 되었다. 최근 유희산업시설을 각 시대의 건축 양식과 기술을 간직한 보존의 대상으로 산업화의 역사성과 가치를 지닌 장소로 인식하면서 이를 재생, 활용하는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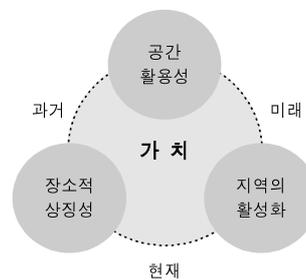
유희산업시설은 주변 상황의 변화로 더 이상 본래의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현재는 쓰임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나, 해당 입지의 장소성과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자원이다.²⁾ 또한 시대적 가치를 간직한 장소로 활용가치가 있는 잠재력 있는 공간이다.

2.2.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가치 및 경향

(1)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가치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산업시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나 도시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축적되어 있는 장소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업시설은 넓고 큰 크기를 보유하고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현대적 디자인과 결합하여 새로운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활용성이 크다. 셋째,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독특한 지역 문화유산을 만들어 지역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재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희산업시설의 재생은 사회적으로 지역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대적 트렌드와 일치하며 여러 기능의 수용, 용도의 다양화가 가능하며 창의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다.



<그림 1> 유희산업시설 재생 가치³⁾

2) 김성진, 유희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14

(2)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경향

유희산업시설의 재생은 해당 지역이 요구하는 기능과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국 런던의 트루먼 브루어리(Truman Brewery)는 17세기 양조장이었던 시설을 예술가들의 자연스런 교류로 인해 모임·전시·공연 등이 이뤄지는 예술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사례이다. 1950년대 구형버스를 개조한 '버스 레스토랑'과 각국의 풍물을 즐길 수 있는 '선데이 마켓', 그리고 헌옷의 재활용을 내건 공익 캠페인 '쇼와핑(Shwopping)' 등을 통해 장소성을 활용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도입으로 유희산업시설을 성공적으로 재생시켰다.⁴⁾



<그림 2> 트루먼 브루어리 OUTDOORSPACES, 영국 런던
(출처: <http://www.trumanbrewery.com>)

독일의 출페라인 탄광지구(Zollverein Coal Mine)는 19세기 중반부터 독일의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방대한 탄광지대였다. 1993년 폐광후 주 정부 주도하에 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58m의 거대한 수직갱 '샤프트 12'의 외관과 골조를 유지하여 루르 박물관으로 개관하고, 보일러 하우스는 노먼포스터에 의해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다. 이외 석탄 저장고, 가스공장 등의 건축물들은 전시, 공연장의 역할을 하며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업의 상징이었던 곳을 문화를 이끄는 장소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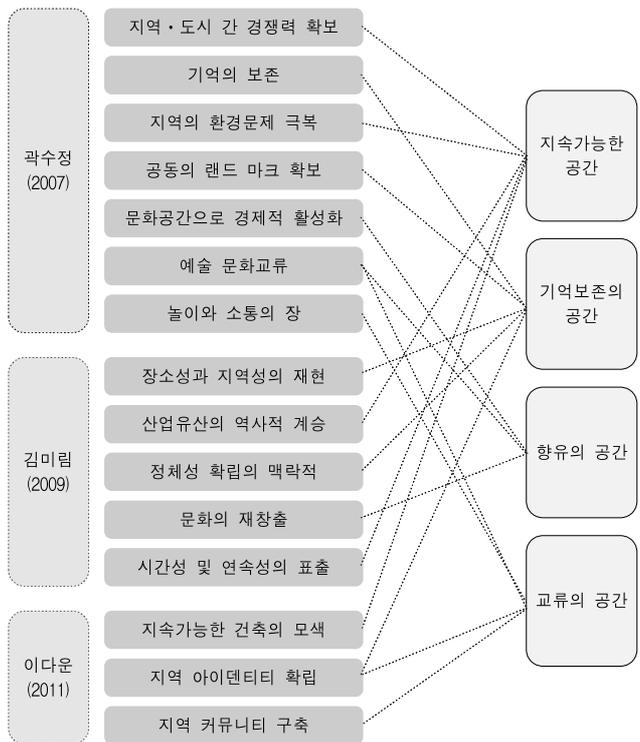
이처럼 최근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경향은 건축물의 외관, 구조 등 산업시설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참여프로그램과 콘텐츠의 도입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킨다.

2.3. 유희산업시설 재생의 특성

유희산업시설 재생과 관련한 광수정(2007)⁶⁾, 김미림(2009)⁷⁾, 이다운(2011)⁸⁾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나타나는 공통적 가치로 지속가능한 공간, 기억보존의 공간, 향

유의 공간, 교류의 공간을 도출하였다.

<표 1> 유희산업시설 재생 특성



(1) 지속가능한 공간

지속가능한 공간은 방치된 산업시설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용과 주변 환경, 역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 변화와 함께 한다.

산업시설을 재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구조, 양식, 형태, 기능 등의 물리적 건축구성요소와 입지패턴, 지역성, 문화, 생활방식 등 그 시대의 건축적인 조직과 질서에 따른 전통을 이해하고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연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특징은 도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바탕으로 건축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어 지속될 수 있다.

(2) 기억보존의 공간

기억보존의 공간은 과거의 시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물질적 공간이며 역사적 상징을 나타내는 공간이다.¹⁰⁾ 공간의 형태, 구조, 재료 등은 활용 목표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방법을 통해 재생산 가능하다. 영국의 테이트모던 갤러리는 화력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재생할 때 지역주민들의 친숙감을 유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며, 산업시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만 부분적으로 개조하

3) 김승환, 도시 유희 산업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제3의 장소' 창출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14, p.14 재구성

4) 광주일보, '버려진 양조장' 재활용 '어두운 뒷골목' 별 들다. (2014.8.18)

5) 한국일보,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에센-광산도시에서 예술을 캐다.(2010.7.22)

6) 광수정,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7, pp.160-180

7) 김미림, 산업유산건축물의 재생·활용을 위한 디자인 특성 연구, 한세대 석사논문, 2009, pp.40-44

8) 이다운,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1, pp.24-25

9) 김미림, op. cit., pp.42-43

10) 광수정, op. cit., p.160

여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해당 지역의 이미지와 경험은 자연스럽게 기억의 장소가 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3) 향유의 공간

산업구조의 변화로 현대인들은 정신적 만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억과 향수를 느끼고 싶어 하는 공간의 수요와 함께 남과 다른 차별화된 장소의 추구로 유흥산업시설을 재생,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유흥산업시설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간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4) 교류의 공간

공장지대와 같은 곳을 개조하여 터전을 잡은 스튜디오 공장들은 크고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예술가들이 아틀리에 장소로 많이 사용되며, 예술작업과 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변과 교류해 나간다.¹¹⁾ 교류의 공간은 작가들의 교류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을 결속해주어 지역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된다.

3.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 특성

3.1. 창의공간의 이론적 고찰

(1) 창의산업의 개념

창의공간은 창의산업에 기초한 것으로 창의공간에 앞서 창의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창의산업¹²⁾은 나라나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되고 비즈니스의 구성, 발전의 형태,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

경제학자 로머(P.Romer)는 1986년부터 “창의산업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해왔고 새로운 창의산업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태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1997년 영국정부가 창의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명칭을 통합하여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였다.¹³⁾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DCMS)의 보고서에 따르면 창의산업을 ‘개인의 창의성(기술, 재능)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활용하여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산업에 포함되는 13개 분야로 ‘광고, 건축, 예술과 문물거래, 공예품, 디자인, 인

테리어, 영화, 인터랙션 레저 프로그램, 음악, 표현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방송’을 들었다.¹⁴⁾ 창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상하이 창의공간의 형성 과정

상하이는 1842년 난징조약 후 개항되어 근대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인과 외국인이 거주하는 화양잡거(華洋雜居)의 공간을 형성하고, 동서양이 융합하여 독특한 문화양식을 탄생시켰다.¹⁵⁾ 상하이는 90년대 이후 공업기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현대화 된 국제 대도시로 도약하고자 ‘도심 지역에는 상하이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교외에는 상하이의 경쟁력을 축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며, ‘3-2-1정책’, ‘양개우선(兩個優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¹⁶⁾ 이 시기에 예술인들은 노후한 공장, 창고 등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작업실로 사용하며 창의공간이 형성되었다. 상하이 시정부는 이에 주목하여 창의산업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창의산업집취구를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흥산업시설을 창의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¹⁷⁾ 이러한 정책은 <상하이 창의산업 11차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난다. “상하이는 다량의 옛 서양건축, 공장, 창고 등 우수한 역사 건축군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설계 및 개조를 통해 옛 건축의 역사적 풍모를 보존하고, 옛 공장에 새로운 산업 요소를 주입하여 새로운 기제와 가치들이 모이도록 함으로써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라고 언급하였다.¹⁸⁾ 1933노장방, 전자방, 홍방 등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도심으로서의 상하이는 수많은 재생건축 혹은 공간은 옛 건물에서 역사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재 필요에 맞는 공간으로 갱신하는 데에 있어 대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¹⁹⁾ 이러한 변화는 도심지역에 조성된 창의산업과 맞물려 새로운 창의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3.2.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 특성 도출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이의 창의공간과 관련된 선행논문을 통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유흥산업시설 재생가치와 창의공간과 관련된 선행논문

14) 김재범, 영국 창조산업의 정책 흐름과 향후 방향, 창조산업과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p.18

15) 원진, 상하이는 어떻게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학연구 제20집, 2009.5, pp.7-27

16) 김혜진, 상하이의 산업유산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 연구, 중국학 연구회 제65집, 2013.9, pp.328-335

17) 이인희 외 2명, 중국 상해 근대산업시설의 형성과 재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9권 12호, 2013.12, p.255

18) 한지은, 창조도시의 중국적 맥락: 상하이 창의산업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5권 2호, 2014.8, pp.141-142

19) 왕설서, 상해 근대건축의 재생 특성에 관한 연구-1933 노장방을 중심으로-, 대진대 석사논문, 2013, p.3

11) Ibid., p.173

12)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은 국가, 경제,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의산업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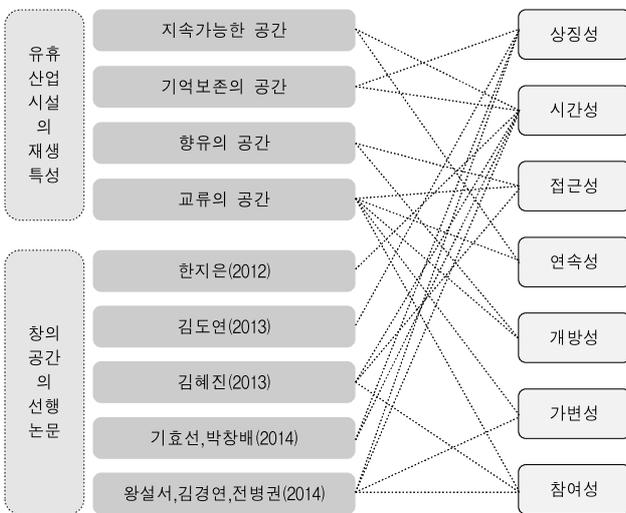
13) 상하이 창의산업(創意産業/文化), http://blog.naver.com/yeesang_130099315611

<표 2> 선행논문분석

연구자	제목	핵심개념	키워드도출
한지은 (2012)	창조도시의 중국적 맥락 : 상하이 창의산업구를 사례로	• 건물재산권유지 • 보호성 개발	시간성
김도연 (2013)	상하이 창의재생단지 내러티브적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일관성, 개연성, 상징성, 묘사성	상징성
김혜진 (2013)	상하이의 산업유산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 연구 -M50창의산업원구를 중심으로	• 건축원형보존 • 자생적 형성 • 커뮤니티 구성	시간성 참여성 접근성
기효선 박창배 (2014)	상하이 근대공업건축의 재생에서 나타나는 공업건축의 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 지속발전 원칙 • 고유성 및 전통성의 원칙 • 수익의 원칙	시간성 상징성
김경연 전병권 왕설서 (2014)	1933노장방에 나타난 상해 근대건축의 공간재생 특성에 관한 연구	• 문화, 예술의 수용 • 원형의 보존 • 공간의 원형 복원 및 재구성 • 현대적 재생 요소의 도입	참여성 상징성 시간성 가변성

의 공통적 키워드로 상징성, 시간성,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가변성, 참여성을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표 3>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 특성 도출



3.3.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 특성

(1) 상징성

상징성이란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면서 시대와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간과 장소를 각인 시킬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하나의 완전한 독립적 이미지를 부여하면 해당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림 3> 798예술구 굴뚝, 2012, 중국 베이징 (출처:flickr@La Priz)

UCCA갤러리는 베이징 798

예술구 내 위치한 여러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넓은 벽체와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지붕 모

습의 외관을 유지하여 과거 사회주의 공장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50미터 높이의 수직적 굴뚝의 존재는 다른 건물과 차별화되며, 과거 이 지역이 공장지대였음을 상기시키는 요소로 활용한 것은²⁰⁾ 과거나 현재의 기능을 상징성 측면에서 표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간성

시간성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부터 미래까지 공간에 남아 표현되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의 흔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흔적은 과거에 형성된 문명과 시대를 접촉하고 있는 매개체로 결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²¹⁾ 기둥, 보, 벽체, 트러스 구조 등 산업시설의 구조체가 가지는 특유의 형태, 색채, 물성 등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재료와 만나 공간에 다양한 성격을 부여한다. 노만 포스터가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을 개수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의 러시아 군인들이 독일 국회의사당 벽에 남긴 낙서와 포탄 자국을 그대로 보존한 것은 역사적 사건을 환기시키는 것에서부터 물리적인 건축물의 축조 방식이나 구조, 양식 등 과거의 상징을 재인식하여 과거와 현재의 공존관계로 유지하는 특성이다.



<그림 4> 독일 국회의사당, 2012, 독일 베를린 (출처:http://www.jhkurbanlab.co.uk/urban/)

(3) 접근성

접근성은 언제 어디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의 유리한 정도를 의미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낙후된 유희공간은 특성상 도시 중심보다 외곽 쪽에 위치하여 접근의 어려움이 있다.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리나 산책로를 정비하거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연계하고, 다양한 출입구를 통해 개방적이고 내, 외부공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부의 녹지나 휴게시설의 이용으로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객들이 쉽게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북측 템즈강 위에 23미터의 폭으로 이루어진 경사로를 따라 진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내부 전시실인 터빈홀로 유입되어 실내공간을 이용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그림 5> 테이트모던 진입로, 영국 런던 (출처:flickr@reservasdecoches)

20) 김명옥,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3호, 2009.6, pp.32-33

21) 유희정, 도시재생전략으로서 근대산업 유희공간을 활용한 컨버전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3, p.29

(4) 연속성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에 따라 지각이나 경험에 연속적인 변화를 부여하는 현상이다.²²⁾ 연속된 공간은 동선체계에 따라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없앤다.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색다른 경험을 부여하고 새로운 소통의 관계를 발생시킨다. 공장이나 창고 같은 단일한 평면을 가진 곳은 용도에 따라 바닥의 고저차를 변화시켜 공간을 분할할 수 있고 사람들의 시각적 특성을 변화시켜 활동을 유도한다. 수직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 일부를 증축시키거나 열어 두어 위와 아래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한 형태와 수평적으로 분할하여 공간과의 연결이나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특성으로 다양한 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6> 홍방 전시실, 2014, 중국 상하이 (출처: 자체 촬영)

(5) 개방성

개방성은 기능에 따라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거나 연결하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일부를 투명하게 표현하거나 열어두어 시각적 개방감을 높일 수 있다.

개방적인 공간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시퀀스를 부여하여 공간계획의 유용한 요인으로 작용한다.²³⁾ 단일건물을 개조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건물 내의 적극적인 교류와 공간의 공유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홍방의 상하이 조각예술센터는 초대형 문을 열면 넓은 베란다와 건물 뒤편의 조각공원까지 시야가 확대되어 야외전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동선의 흐름이 발생한다. 조각공원은 다양한 설치작품이 배치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7> 홍방 전경, 2014, 중국 상하이 (출처: 좌, 중, SPACE no.477, 우, 자체 촬영)

(6) 가변성

가변성은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 공간이 가지는 기능이 변하는 것으로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을 부여한다. 산업건축물을 활용한 실내 공간은 거대하고 개방적이며 견고한 복합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필요

22) 조인성, 역사적 건축물의 재생을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12, p.21

23) 안진희, 현대 미술관 공간의 시지각적 시퀀스 표현방법과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2, p.36

에 따라 다층이나 반 층으로 분할하는 등 가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변적인 벽체로 공간을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것 외에도 고정된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전시실이 세미나실이 되기도 하고 야외공원이 전시실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참여성

참여성은 커뮤니티 가능한 교류와 공유의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을 활성화 시킨다.

미국의 P.S.I (Project Studios One Contemporary Art Center)는 정부의 소유로 된 공장이나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조성되었다. 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시를 관람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워크숍을 통해 예술가들과 대중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외부공간은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설치하여 이벤트 공간으로 변모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²⁴⁾



<그림 8>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Party Wall by CODA. 2013, MoMA PS1, 미국 뉴욕 (출처: <http://momaps1.org/jap/view/16>)

3.4. 소결

앞에서 도출한 창의공간의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표 4>로 재정리하였다. 재정리된 분류체계는 상하이 창의공간의 표현특성을 분석하는 기본 틀로 적용한다.

<표 4>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특성

표현특성	표현방법
상징성	공간의 아이덴티티 반영
시간성	역사적 흔적의 보존
접근성	지리적 위치, 내, 외부의 유기적 접근성
연속성	바닥의 레벨, 수직·수평의 변화로 연속된 공간 형성
개방성	시야의 개방을 통한 공간의 흐름 유도
가변성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 가능한 공간
참여성	커뮤니티 가능한 교류와 공유의 공간

4. 상하이 창의공간의 사례분석

4.1. 분석대상의 범위

24) 오세경 외 1명,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산업학회 학술논문 제10권 제3호, 2010.12, p.140

	별화된 요소로 전시실의 초대형 문을 열면, 내부공간의 시야가 조각공원까지 확대되는 개방성이 나타난다.
가변성	야외 조각공원은 전시품을 감상하는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이다. 건축물의 지붕까지 연결된 경사진 조각공원의 잔디광장은 어린이들의 놀이터이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가변성이 나타난다.
참여성	타 창의공간과 달리 작가의 예술 활동보다 갤러리, 레스토랑, 교육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넓은 야외 조각정원이 있어 관광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참여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

No.4	2577창의대원 (2577 創意大院)		
위치	서희구 용화로 2577호	개관연도	2006년
규모	연면적 20,000㎡	원 기능	군수공장, 제약회사

1890년대 청나라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로 군수품 감반 제조국, 용화제약회사로 바뀌었으나 2006년 2577창의대원으로 개수, 오픈하였다. JOB & LIFE의 이념으로 일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창의공간이다



특성	상징성	시간성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가변성	참여성
	●	●	●	●	●	-	●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특성							
상징성	청나라 시대의 건축물로 장소적 위치와 함께 내외부의 큰 개조는 없으나 역사적 가치로 인한 상징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성	건축물 외부 형태와 기와, 허물어진 담장 등의 요소를 유지하여 시간성을 표현한다. 외부에 비해 내부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하여 시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접근성	내부순환도로 및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편리한 위치로 접근이 유리한 단지는 주출입구의 붉은색 지주 사인으로 시인성을 높여 접근성을 높였다. 일부 건축물은 외피를 투명하게 개조하여 외부에서 쉽게 진입, 전시 등을 감상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연속성	확산형 배치 구조로 건축물 외부에 조형물과 수목을 식재하여 지루하지 않는 동선으로 단지 전체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지만, 개별적으로 형성된 건축물은 단독으로 쓰여 공간의 연속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개방성	주출입구에서 넓게 펼쳐진 광장은 개방감 있는 배치 형식을 취한다. 중앙의 건축물 한 면을 투명하게 처리, 외부의 시야를 내부로 연결하여 개방성을 높였다.						
가변성	공간 활용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						
참여성	여러 국제기관들이 입점하여 예술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발레 교실, 도자기 체질소, 녹음실, 가구 제작소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기업, 예술가,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였다.						

No.5	1933 노장방 (1933 老場坊)		
위치	홍구구 사경로 10호, 29호	개관연도	2006년
규모	연면적 31,700㎡	원 기능	도살장, 제약회사

1933 노장방은 도살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시대에 따라 도살장, 육류가공공장, 제약회사 등으로 용도가 수차례 바뀌었다. 2005년 상하이 우수 역사건축으로 지정, 1933 크리에이티브 센터로 개명, 2006년 개관하였다. 건물은 패션쇼, 오락시설,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되는 주 건물인 본동과 아틀리에, 교육센터, 소품센터 등의 부속 건물로 이뤄져 있다.



특성	상징성	시간성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가변성	참여성
	●	●	●	●	●	●	●

창의공간의 디자인 표현특성							
상징성	전면 파사드를 이루는 화격창은 도축 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한 통풍의 역할이지만 현재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하는 상징적 요소이다. 건축물 전체에 배치된 300여개의 우산형 기둥은 하중을 지지함과 동시에 독특한 스타일을 반영하여 건축물 전체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시간성	바로크 건축 양식의 콘크리트 건축물로 70여년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고, 기존의 마감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손상된 표면만 개수하여 시간성을 유지하였다. 곳곳에 부착된 가죽모양의 사인, 대형 문과 바닥, 벽에 새겨진 낙서 등은 이곳이 도살장이었다는 시간성을 표현한다.						
접근성	주변 항구와 상업지대로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높다. 독특한 형태의 파						

	사드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며 접근을 유도하고, 내부로 열려있는 구조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연속성	내, 외부의 마감의 통일로 공간을 일체화 시켜주며, 가족들이 다니던 우도, 26개 다양한 크기의 다리, 나선형 계단을 통해 각 층을 연결하여 옥상까지 이어진다. 내부 경사로로 이어지는 공간은 레벨이 다른 위치에 따라 시각을 다각화 시켜 공간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개방성	외부는 무거운 콘크리트 마감으로 시각적으로 막혀 있지만, 사각형 구조의 외곽과 중심원형 구조 사이에 연결된 브릿지는 서로 다른 위치로 배치되어 하늘로 열린 개방성을 가진다. 내, 외부의 경계가 없는 공간 구성은 시야를 확장시켜 개방성 있는 실내를 표현한다.
가변성	본동 상층부의 중앙 무대는 전시회, 패션쇼, 연극 등 여러 이벤트를 개최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화한다.
참여성	자주 이벤트 성 행사를 개최하여 전 세계 작가와 주민들이 몰려 와 시민들과 주민들의 참여성을 높이고 있다.

4.3. 소결

<표 7> 사례종합 분석

구분	상징성	시간성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가변성	참여성
8호교	●	●	●	●	●	●	○
모간산루 M50	●	●	●	●	○	-	●
홍방	●	●	●	●	●	●	●
2577창의대원	●	●	●	●	●	-	●
1933 노장방	●	●	●	●	●	●	●

상하이 창의공간의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성은 원형을 유지하거나 실내의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고 노출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8호교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실내의 구조를 노출, 강조하는 방식과 함께 대비되는 외관의 강조로 상징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둘째, 시간성은 굴뚝이나 기둥, 보, 트러스, 지붕 등의 구조를 노출하여 산업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특성을 실내, 외 공간에 표현하였다. 기존 구조의 노출이나 마감을 유지하거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덧붙여 표현한 것으로 사례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접근성은 창의공간에 접근하는 다양한 동선의 계획과 전면에 광장을 설치하거나 조각공원을 설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였다. 모간산루 M50의 경우 상하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도로환경을 개선하거나 보행자 길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유도하였다. 홍방의 경우는 다양한 진입동선을 계획하면서 주 출입구를 오픈형으로 개방하고 조각정원을 설치, 조형물, 사인물 등을 통해 내부로 접근성을 높였다.

넷째, 연속성은 산업 건축물이 가지는 높은 층고와 넓은 면적을 가진 특징을 활용, 공간에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표현하면서 기능에 따라 분할하여 동선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였다. 건축물간 브릿지나 복도를 구축하여 여러 동으로 형성된 공간을 연결하여 내, 외부의 공간을 연속시켰다. 이러한 특성은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 개방성은 폐쇄된 형태의 건축물 외관의 일부를 투명한 소재로 개조하여 내부로 개방된 공간을 보여주거나, 실내의 일부를 열어 외부로 시선을 유도하는 등 다수의 사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 번째, 가변성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가변적인 공간으로, 홍방의 경우 야외 조각공원은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교육공간이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는 용도의 가변성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타 창의공간은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변성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일곱 번째, 참여성은 기업, 주민, 예술가 등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공간을 활성화시킨다. 모간산루 M50의 경우 대학과 연계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간적 배려를 통해 참여성을 높였다.

5. 결론

상하이에서는 유희산업시설을 재생시킨 공간을 창의공간이라 명명하고 문화시설, 상업시설, 오피스 등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하이 창의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표현 특성을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산업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과거를 반영한 건축물의 외형과 실내구조를 보존하거나 노출하여 시간성을 표현하였으며, 동시에 랜드마크가 되는 구조물로 상징성을 표현, 차별화 된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둘째, 내부와 외부는 열려있는 개방적인 특성을 취하여 누구나 거부감 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연속된 공간은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이어지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공간의 가변성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사회의 예술 문화적 중심시설로 조성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교류의 장에 의한 참여성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였다.

위와 같은 특성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희산업시설을 재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건축물의 기능만 변경하는 차원을 넘어 용도와 목적에 따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표현할 때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에서 유희산업시설을 재생함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창의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공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김성진, 유희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 김계범, 영국 창조산업의 정책 흐름과 향후 방향, 창조산업과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 3.곽수정,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2007
4. 김미림, 산업유산건축물의 재생·활용을 위한 디자인 특성 연구, 한세대 석사논문, 2009
5. 김승환, 도시 유희 산업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제3의 장소' 창출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14
6. 안진희, 현대 미술관 공간의 시지각적 시퀀스 표현방법과 공간 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2
7. 왕설서, 상해 근대건축의 재생 특성에 관한 연구-1933 노장방을 중심으로-, 대진대 석사논문, 2013
8. 유희정, 도시재생전략으로서 근대산업 유희공간을 활용한 컨버전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3
9. 이다운,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1
10. 조인성, 역사적 건축물의 재생을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12
11. 김명옥,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3호, 2009.6
12. 김혜진, 상하이의 산업유산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 연구, 중국학 연구회 제65집, 2013.9
13. 오세경 외 1명,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공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산업학회 학술논문 제10권 제3호, 2010.12
14. 한지은, 창조도시의 중국적 맥락:상하이 창의산업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 제15권 2호, 2014.8
15. 원진, 상하이는 어떻게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학연구 제20집, 2009.5
16. 이인희 외 2명, 중국 상해 근대산업시설의 형성과 재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9권 12호, 2013.12
17. 조연주, 신경주, 유희산업시설의 컨버전 사례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3호, 2011.6
18. 광주일보, '버려진 양조장' 재활용 '어두운 뒷골목' 별 들다.(2014.8.18)
19. 상하이 창의산업(創意産業/文化), http://blog.naver.com/yeesang_/130099315611
20. 한국일보, 세계의 소프트시티를 가다, 예센-광산도시에서 예술을 캐다.(2010.7.22)

[논문접수 : 2014 09. 30]

[1차 심사 : 2014. 10. 23]

[게재확정 : 2014. 11. 07]